

新 執 行 部

신 정 일
〈유일농원영업부장〉

● 새 출 發

大韓養鷄協會가 1962年 韓國家禽協會로 발족되어 부화협회와 초생추감별협회를 병합하면서 성장해 오는 동안 수차에 걸쳐서協會의業務를 관장하는 회장단이 바뀌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양계의 時代的 변천에 따라協會의體質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창립 14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年末 정기총회는 또 한번協會의業務를 집행할 新任會長團이 선출된다는데 깊은 뜻이 있다.協會의 정관에 따르면 회장단의 임기는 2年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會長직을 맡아오던 김재춘씨가 사의를 표명하므로써 김재춘씨의 회장직 재선임에 대한 가능성은 없어졌다. 대한양계협회는 양계업계의 가장 중추적인 단체이고 일반양계인을 위한 실질적인 生産者단체이기 때문에 또한 어떤단체의 업무집행능력이나 방향은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長의體質에 따라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에 양계업계에 속하여 있는 우리 모두들은 이번 年末協會의 정기총회에 있어서 新任會長團의 선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協會의 활동과 회장으로서의 책임도 물론 매우 막중한 것이었지만 이번에 선임될協會의 次期會長의 책임과 앞으로의協會의 활동은 특히 중요하다. 이때까지 양계업계는 생산성위주의 內的 활동에만 몰두해 왔

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효율향상을 위한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었느냐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연마로서 생산효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양계규모가 확장되고 계사의 관리수명이 오래됨에 따라 생산효율을 저하시키는 각종 질병의 다발은 점점 더욱 문제시되어 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協會는 이러한 생산성향상의 內的활동과 더불어 소비촉진, 유통질서확립, 축산정책에의 참여 등 산적해 있는 外的활동을 과감히 펼쳐 나가야 하는 일대 전환점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養鷄史의 분수령——이러한 뜻에서 새로이 선임될 회장과 그 집행부는 時代에 부응하는 진실되고 박진력있는 새출발의 각오를 단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임 무

새로이 탄생할 新執行部는 次期 2年동안 會員과 養鷄業界의 發展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事項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조사통계 業務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고질적인 병폐中에 하나가 통계자료의 부정확이다. 통계자료는 모든 정책결정의 기본이 되고 事業판단의 중추가 되고 방향제시와 전망을 유추하는데

편치라인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된다. 정확한 통계자료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은 거의가 주먹구구식으로 끝나버린다. 76年度에 들어와서 월간양계誌에 게재된 통계자료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엉망진창이다. 통계자료의 중요성과 통계자료의 부정확을 모두가 통감하면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요인이 어디 있을까? 통계조사사업이 도중에서 끈어질 때 그 가치가 반감된다. 마치 우리가 매일 세끼의 밥을 먹듯이 통계조사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중단없이 정확히 계속되는 통계조사는 우리 양계인의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2. 양계기금조성

일반산업의 생산물가격 변동과 양계산물의 가격변동을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 공산품은 경기가 부진할 때 창고에 저장해 둘으로서 비록 기업활동은 둔화되지만 가격인하를 당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양계산물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순박하고, 저장할 수 없는 산물이라는 약점 때문에 유통부문업자나 사장상인에게 항상 얻어 맞고만 있다. 他 業界의 생산물은 매년 그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나 양계생산물의 가격은 인상폭이 매우 적다.

장기적인 소비촉진대책을 위하여, 특별한 사회적인 여건으로 갑자기 시세가 폭락할 때의 타개책을 위하여, 순박한 양계인이 시장상인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양계기금은 필요하다.

3.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증대사업

1976年 10月 22日 金요일——, 이 날은 매 3年마다 돌아오는 윤달 8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9월 8일 추석을 지나면서 잠깐 치솟았던 육계가격이 하락되면서 윤 8월이 들이닥

쳤다. 육계가격은 kg當 380원까지 하락되었고 육용업계는 완전 침체속으로 계속 빠져들었다. 그러나 윤달이 끝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동안 닭고기가 소비되면서 10월 25일 월요일은 kg當 420원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週에 500원代를 올라섰고 그 다음 週末경에는 600원代를 넘어 급기야 kg當 650원까지 훑기하면서 상당 기간동안 장세가 지속되었다.

서울시민 600만 인구중에 生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윤 8월에 생일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명정도나 될까? 生日중에도 들잔치나 회갑잔치는 그야말로 푸짐한 닭고기의 소비시장이 된다. 여기에 선조들의 영령을 모시는 기제사까지 겹치면 시장장은 더욱 넓어진다. 물론 양력생일을 기준하는 시민도 많다. 양력시민을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어림잡아 계산하여도 인접 위성도시까지 합치게 되면 서울지방의 1일 닭고기 수요가 약 3만 수되는 시장을 윤 8월 한달동안 완전히 잃어버린 결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윤 8월과 관계가 없는 통닭집의 닭고기 소비는 약하게나마 계속되었기 때문에 세미가격은 450원代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시장이 그만큼 알다는 것을 증명한다. 생활의 의식구조가 가장 진보적이라는 서울시민의 닭고기 소비경향이 이런 정도이니 하물며 지방에 있어서랴! 그러면 과연 윤달의 양계업계는 이렇게 항상 수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안정된 소비경향을 창조할 수는 없는가? 추석과 같은 대목경기에서 他 식품의 시장을 뺏고 닭고기나 계란이 좀더 넓은 소비시장을 확보할 수는 없을까? 야구의 신화적인 존재 베이브 루드가 아침식사에 계란 30개를 먹고 저녁식사에서 1.6kg짜리 통닭 한마리를 매일 먹음으로서 한없는 스태미너를 지닐 수 있었다

편치라인

는 사실을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는 없을까?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킨다는 식자우환식의 가당치도 않은 사실이 우리들에게 전혀 해당없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주지시킬 수는 없을까? 新執行部는 여기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층에 대한 노력—이는 국민체력이 향상되고 양계업계가 부유해지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이제부터 다시 3년뒤의 윤달이 끝나는 날 육계소비비용조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회양상의 변천에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협회와 양계인의 노력도 그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으로 비추어 신집행부의 업적은 그때 평가받을 것이다.

유통질서확립 특히 육계유통에 대해서는 당국과 협회와 양계인 모두가 바람직한 형태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결의 章으로 남아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자가 안심하고 생산에 몰두할 수 있게 하고 상인의 과잉이윤에 의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生産業단체인 協會는 당연히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4. 가금산업의 위치정립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옛날의 선비들이 가엾은 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로서 만든 말인지, 혹은 진실로 농업의 숭고함을 깨달아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한 말인지는 몰라도, 사람의 식량을 生産하는 농업이 가장 중요하고 뜻있는 産業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예로부터 관준민비의 사상에 젖어 있고 현대에 와서는 황금만능주의의 화이트칼라족을 우러러보는 경향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농민은 언제나 그들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들고 약자속에 포함되고 비굴해지고 있는 것

이다. 축산업도, 양계업도 넓은 뜻의 농업이다. 구로공단에서 한달에 1만원도 못타는 공원은 어깨를 죽 찢고 그들의 직업을 자랑하고 양계장에서 숙식제공하고 월급이 2~3만원을 받는 관리원은 자기의 직업을 숨기려 든다. 왜 양계인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부끄러워 하는가? 왜 양계인들은 국민체력상에 절대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생산자의 긍지를 못가지고 있는가?

왜 양계인들은 그들이 1년에 계란 30억만 개와 닭고기 8천만수를 국민들에게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할 때 1,700억여원의 물동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총생산량의 적어도 얼마가는 차지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新執行部는 이러한 가금산업의 위치정립에 노력해야 한다.

5. 면세제도 및 세율인하투쟁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축산업의 조세감면규제법은 소득발생일로부터 3년면세, 그 후 2년은 50% 감면으로 국회재무분과위에서 결정되었다. 즉 재무부 당국의 애초 案대로 결정된 셈이다.

法이나 제도는 국민들이 국민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다. 上記와 같이 결정되었다 해서 수정되지 말란 법은 없다. 축산인들은 축산업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계속 노력하여 국가와 축산업에 올바른 法을 제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同時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계업의 세율 즉 양계 12%, 부화 19%의 세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수정 인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新執行部의 중요한 과제는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6. 육종방향결정

新執行部가 앞으로 2年동안 업무를 수행하

편지라인

는 동안 國內육종방향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논란의 파도를 맞게 될 것이다. 1976年度에는 국내에서 육종되고 있는 육종사업을 보완하고 더욱 충실한 육종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Pure Line(순계)을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된 순계가 어떻게 관리될 것이며 기존 국내 육종계와 어떠한 상호협조를 할 것이며, 도입된 순계로서 국내육종에 충분하기 때문에 과연 더 이상의 외국순계를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한 거센 파도가 반드시 밀어닥치리라. 新執行部가 사실 앞으로 2年동안 업계를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혹은 훌륭한 행정능력과 비전있는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관건은 이 문제의 해결능력에 있다고 할 것이다.

7. 능력검정업무의 보강

닭의 생산능력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같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종계의 관리상태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고, 더우기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순계들의 자손이 과연 얼마나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지침으로서 능력검정업무는 점점 더 중요시될 것이다. 검정업무의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체제를 더욱 개선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새로운 집행부에 맡겨질 것이다.

8. 생산조절업무

소비촉진이나 양계기금을 활용한 비축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에 병행하여 양계산물 가격형성의 절대적인 요소인 생산량조절도 동시에 계속되어야 한다.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부화장과 종계장에 대한 생산조절은 협회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또한 각 부화장과 종계장은 이에 호응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부화장은 허가제로, 종계장은 등록제로 행정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더 수월할 것이다. 이제 순계를 보유한 국내 육종회사가 3곳, 생산조절 업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9. 생산성 향상

양계인이 양계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몰두하고 있지만 해결되기는 커녕 점점 더 만연되어 가는 것이 질병문제이다. 생산성 향상이라고 한다면 다른 관리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질병예방대책이다. 개개인의 소극적인 질병대책으로서만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대단위 양계단지나 기업 양계인의 경영년령이 늘어감에 따라 질병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조직적이고도 범 업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0. 편집 및 지도사업

월간양계誌가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생산부수가 몇 부이기에 이렇게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가? 월간양계誌의 통계자료가 부정확하니까 참고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 권위있는 학자의 투고가 없으니 읽을 기사거리가 없다. 월간양계誌의 생산부수를 늘려서 삼천리양계장 어디에나 침투되어야 하고, 권위 있고 신빙성있는 기사와 자료로서 명실공히 양계인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金(금)과 같이 아끼는 귀중한 책이라는 인식이 양계인에게 심어져야 한다.

11. 산학협동

앞으로의 육종방향을 제시하고, 능력검정업무를 보완하고, 편집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생산조절을 하고, 양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산학이 협동하는 학자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최근 얼마동안 냉각된 산학협동체제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는 과

편치라인

제가 新執行部에 맡겨질 것이다.

12. 기 타

會員의 회비를 증액시켜 협회의 재정을 국가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반회원이나 단체회원으로 부터 특별찬조회비를 부가가치 및 창조가치에 대한 투자로서 기부케 하는 것, 직원의 급여액을 인상시켜 줌으로서 협회직원은 항상 출다는 인식을 없애고 사기를 앙양시켜 업무의 능력을 높이는 것, 현재 양계인들의 머리속에 심어져 있는 “협회는 도대체 무엇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업무집행자세를 바꾸는 것 등—매우 많은 자질구레한 업무들도 마치 음식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안나듯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다.

● 結 言

協會는 옛날과 달라서 직접 간접으로 이런

이 개입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 앞으로 協會를 운영해 나갈 會長단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中의 하나가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협회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회원과 양계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업무를 집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리라.

땅콩농장주인 카터의 조지아 사단이 워싱턴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次期 協會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미국이 오만가지잡탕 인종들로 구성된 나라이지만 그들이 강한 이유는 단결심때문이다. 그들은 싸울 때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여 투쟁하지만 일단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결정되면 모두가 한 용광로 속으로 뭉쳐 단결해 나간다.

12월의 협회 총회가 끝나는 순간부터 신입 회장단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양계업가 和合 단결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